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The Sinner of the Nation and the Confession Strategy

저자 박상준
(Authors) Park Sang-Joon

출처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009.4, 277-304 (28 pages)
(Source)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27](#), 2009.4, 277-304
 (28 pages)

발행처 [한국현대문학회](#)
(Publisher) The Learned Societ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50586>

APA Style 박상준 (2009).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27, 277-304.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133.25
 2016/06/13 16: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

박상준**

목차

1. <민족의 죄인>의 문제적인 성격
2. 반성·변명의 이분법과 고백
3. 고백의 전략 : 대칭적 회상구조와 이원적 서술방식
4. 고백의 맥락에서 본 반성과 변명의 문제
5. 해방기 채만식 작품들의 의미망
6. 결론

<국문초록>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은 친일행적을 다룬 문제적인 소설로서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반성’과 ‘변명’의 이분법 속에서 상반된 해석이 내려져 온 것인데, 고백양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면서 해방기 채만식 소설의 내적 연관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민족의 죄인>의 고백은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 패턴을 구사하는 서사전략과 대칭적인 회상구조에 의해 수행된다. 전자에서는 주인공의 반성과 서술자의 변명·변호가 결합되어 반성의 진정성을 높여주고 후자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뒷받침하여 미래를 열어나가게 해 준다. 고백을 통해

* 이 논문은 제3회 국제 한국문화회 학술대회(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2008.10.30)에서 발표한 ‘Reading the Sinner of the Nation’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Columbia 대학의 Theodore Hughes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포스텍

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정체성을 재수립함으로써, 고백의 긍정적·적극적인 기능이 완수되는 것이다.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에 있어서 <민족의 죄인>은 분수령적인 작품이다. 이 소설은 작품 시선의 내향화 과정의 정점에서 풍자를 자기반성으로 지양한 후 역사소설의 지평을 열어 준다. 결론적으로, 이전 작품의 풍자를 완수하고 작품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것이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에서 <민족의 죄인>이 행하는 기능이라 하겠다.

핵심어 채만식, 민족의 죄인, 친일, 고백, 풍자

1. <민족의 죄인>의 문제적인 성격

백룡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¹⁾은 문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문제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

첫째는 식민지시기를 겪은 한국 역사에서 대일협력의 문제에 대한 문학적 보고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 있다. 채만식의 이 소설은 이광수의 <나의 고백>(춘추사, 1948)이나 김동인의 <망국인기>(『백민』, 1947.3) 등과 유를 달리한다. 이광수의 경우 부록으로 달고 있는 <친일파의 변>에서 극명하게 확인되듯 사실상 민족공동체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실용주의적인

1) <民族의 罪人>은 『白民』 제4권 제5호 통권 15호(1948.10)와 제5권 1호 통권 16호(1949.1)에 분재되었으며, 작품 말미에 ‘一九四六年五月十九日 鄉村에서’라 부기되어 있다. 1989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蔡萬植全集』 8권의 해제(256면)에서는 짧은 서지사항에 오류가 다섯 가지나 드러나 있어 문제다. 눈에 보이는 사항 외에 정정할 것은 작품의 분량 문제이다. 위 해제에서는 220여 매 가량 된다고 했는데, 『白民』의 조판 형식으로 추산해보면 200자 원고지 110여 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재 2회에서 ‘중편소설’이라 표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기준에서든 현재의 기준에서든 중편이라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6절로 이루어진 단편소설이다.

자기변명에 닿아 있고, 김동인의 경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여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 없는 과시에 그쳐 있는 반면,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은 고백의 서사로서 주목할 만한 개인적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진정성은, 1930년대에 좌파문학운동을 했다가 해방공간에서 다시 운동성을 회복하는 문인들의 경우와 비교해도 의미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식의 행위를 보이는 이들에 비할 때,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직접적 고백으로서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이 갖는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고백양식의 맥락에서 이 작품을 읽어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둘째는 대일협력 문제를 다루는 내용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의 의미가 반성과 변명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기왕의 선행 연구들이 보이는 입장 차이에서 극명하게 확인된다. <민족의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업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는 입장이 한편에 있는 반면,²⁾ 그에 거리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³⁾ <민족의 죄인>의 주제효과가 반성과 변명 중 어디

2) 김윤식의 「채만식론 - 민족의 죄인과 죄인의 민족」(『수필문학』, 1976.3; 『한국현대문학사 - 1945~1980』, 일지사, 1983)을 효시로 하여 이러한 판단을 공유하는 입장이 무수히 많다. 특이한 자기변명의 논리를 제시하여 민족적 자기비판론을 제시했다고 본 정호웅의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 주체의 문제」(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나 “김’의 논리를 제시하여 면죄부를 발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코자 쓴 것”이라 본 이동하의 「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배달말』 16, 배달말학회, 1991)등이 대표적이다. 사예구사 도시카스의 경우 채만식에 대한 비판을 뚜렷이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작가로서의 자기비판과, 자기비판의 소설화를 혼동함으로써 모랄 문제에 중지부를 찍는 것으로 재생을 시도했다’고 평가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입장에 선다 (‘8·15 이후의 친일과 문제’, 『사예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틀·북, 2000).

3) 채만식이 독보적인 항일 문사라는 입장에서 채만식을 친일작가로 보는 이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최유찬의 「문학의 모험 - 채만식의 항일투쟁과 문학적 실험」(역락, 2006)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최유찬의 다소 극단적인 논지와는 거리를 두지만 <민족의 죄인>이 (변명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보인다는 입장에는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장성수의 「진보예의 신념과 미래의 전망 / 채만식론」(김용성·우한용 공편,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이나 조남현의 『한국 현대 소설 연구』(민음사, 1987), 한형구의 「채만식 문학의 깊이와 높이」(김윤식·정호웅 엮음,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에 속하는가를 두고 연구자들이 이렇게 두 입장으로 갈린 것은, 이 소설의 의미망을 파악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입증한다. 이 점은 변명이나 반성이나와 같은 이분법에 휩쓸리지 않고 이 소설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해석한 경우들의 존재에서도 확인된다.⁴⁾ 일제말기의 대일협력에 대한 문인의 자의식이 작품으로 드러난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에서 <민족의 죄인>이 보이는 반성의 진정성을 따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본고의 경우는, 작품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고백양식적 특성에 근거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기존의 논의 양상을 지양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에서 <민족의 죄인>이 갖는 문제적 성격이다. 이 작품은 해방기에 다시 등장한 풍자적인 소설들과 작가 이력의 말기에 선보인 비풍자적이거나 역사소설적인 작품들 사이에 놓인다. 중간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세계에서 확인되는 주제효과 혹은 작품 경향의 변화를 명확히 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데 있어서 <민족의 죄인>의 분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민족의 죄인>을 검토할 때에야 비로소 이 작품에 대한 해석 및 의의의 구명 또한 적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방기 소설들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이들 전체가 보이는 변화의 내적 방향성을 구명하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 해명은 해방기에서 풍자가 갖는 효과 및 효율성, 가능성 등을 밝히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조창환의 『해방 후 채만식 소설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3, 현대문학이론학회, 1993),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 2(민음사, 2002) 등이 이러한 입장을 보여 준다.

4) 윤대석의 경우는 기억과 망각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면서 이 소설이 “채만식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를 통해 조선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서사”라 규정한 바 있다(『서사를 통한 기억의 억압과 기억의 분류』, 『현대소설연구』 3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방민호의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소명출판, 2001)이나 류보선의 『냉소와 숭고의 이상한 가역반응 - 채만식 문학에 있어서의 친일과 반성의 문제』(『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무)의식』, 소명출판, 2005) 등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다소 유보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민족의 죄인>을 독해하는 데 있어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작품의 형식상 특성을 점검한다. 서사구성상에서 확인되는 회상구조 및 미메시스(mimesis)와 디에게시스(diegesis)를 변별적으로 구사하는 서술방식⁵⁾을 포괄하는 고백의 전략을 살핀다(3장). 둘째는 주인공의 심리변화인데 반성 혹은 변명의 판명 문제가 이에 걸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백양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지양하고자 한다(4장). 끝으로,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해방기에 나온 채만식 소설들의 내적 연관을 살피고 그 속에서 <민족의 죄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학사적 의의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5장).

2. 반성-변명의 이분법과 고백

<민족의 죄인>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인공의 (나아가 작가 자신의) 반성 혹은 변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의 주제효과를 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앞서 지적했듯이 선행연구들은 이 면에서 크게 둘로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은 다소간 자의적인 독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되는 두 그룹이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내용 요소가 상이한 까닭이다. 많은 소설이 그러한 것처럼 <민족의 죄인> 또한 상호 모순되기까지 하는 다양한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⁶⁾ 반성과 변명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이 작품 속에 함께 등장하

5) 본고에서 ‘말하기 / 보여주기’가 아니라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의 각주 16에서 설명한다.

6) 이러한 점은 서사의 갈래가 복잡다기한 장편소설은 물론이고 이른바 ‘인생의 한 단면’으로 표현되는 단일한 사건에 집중하는 단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소설이 ‘작품 내 세계’를 갖추고 그 세계 속에서의 위치와 입장이 상이한 인물들이 맺는 사건으로 구성되는 한, 그러한 서사를 추동시키는 긴장 및 갈등에 의해 근대소설의 언어는 이데올로기 실천

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함께 등장하는, 반성과 변명을 낳는 두 가지 대립되는 내용 요소들은 스토리라인들을 이루는 사건들의 요소로서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쪽에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들의 구조화 상태에 따라서 하나의 내용 요소, 하나의 모티프가 반성 혹은 변명의 의미소로 이중적으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연구자가 어떤 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앞서 말한 대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자.

지배자의 압력이 약하여진 그 계제에 떨치고 일어나 해방의 투쟁을 꾀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서 오직 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데까지 밖에는 궁리가 뚫리지 못한것은 적실히 나의 약하고 용렬한 사람 됨됨이의 시킴이었음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이 유독 그렇게 약하고 용렬하였는지 혹은 대체가 개인적이며 소극적이며 퇴행적이기가 쉬운 망국 민족의 본성의 소치였는지 그분간은 막시 모르되 하여커나 것처럼 약하고 용렬하였던것이 사실이요 겹하여 무가내한 노릇이었었다.⁷⁾

이러한 진술이 반성인가 변명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둘째 문장의 앞부분 두 절의 내용이 변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이 추측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본 절이 반성이기에 전체적으로 반성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진정성을 따지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논의가 간명해질 수 없다. 따라서 ‘반성과 변명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작품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으로서의 담론의 성격을 띠게 된다. 상호간에 긴장, 갈등 관계를 맺는 담론들이 주체효과 면에서도 확인됨은 물론이다. 알튀세르, 페식 등에 의해 발전된 이와 같은 담론 개념에 대해서는 다이안 맥도넬의 『담론이란 무엇인가』(임상훈 옮김, 한울, 1992) 2~3장 참조.
7) 채만식, <民族의 罪人>, 『白氏』 15호, 1948.10, 36~7면. 이하 작품 인용 시에는, 본문에 괄호를 열어 계제 호와 면수를 밝힌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작품론의 기본에 해당하는 일차적, 실증적인 독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반성과 변명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고백의 차원에 주목한다. <민족의 죄인>이 고백을 포함하는 사실은 명백하여 고백양식에 대한 고려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고 효과적인 한 가지 방식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서 고백에 대한 주목은 발화행위의 의도 · 목적 및 효과, 발화자와 청자, 사회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화용론적 분석을 가능케 하여, 소소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논의에 빠지지 않게 해 준다. 이 외에도, 결론을 당겨 말하자면, 방법론적인 범주로 고백양식을 고려할 때 이 소설의 미적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고 해방기에 출간된 채만식 소설들의 내적인 전개양상 및 그 속에서 <민족의 죄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지하는 바대로 고백양식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루소와 톨스토이로 이어지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특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고백의 궁극 목적이 다른 존재의 동정이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맥락에서는, 고백 내용의 진정성이 아니라 고백의 주체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고백을 통해 자신의 불명예를 공론화함으로써 고백의 주체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사회에서의 위상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적 위상의 재수립은 고백 서사를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는 실천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백 서사를 두고서 그것이 거짓되다고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갓 변명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다. 요컨대 고백이란 그 내용의 진실 여부보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고백의 의미와 효과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고백 행위의 실천적 함의와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고백의 맥락에서 <민족의 죄인>의 주제효과를 적절히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주인공-서술자의 고백 중 몇몇 불명예스러운 에피소드 등을 두고서 사실의 곡해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식의 발화가 의도하는 바와 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생산적이다. 실제와 어긋나는 기억을 서술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작가의 실제 행적과 비교하여 정정하고 마는 것은 작품론의 견지에서 보아 별다른 의미가 없다.⁹⁾ 작품 전체의 차원에서 그러한 방식이 갖는 의미효과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비교를 고집하려 한다면 사상이나 신념 등을 포함하는 작품 내의 모든 정보를 비교·검증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그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소설은 허구적인 텍스트이므로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백의 주체인 서술자 ‘나’를 작가 채만식으로 단순히 동일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 경우 <민족의 죄인>의 고백을 적절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한 장애가 다시 등장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친일행적의 고백을 담은 <민족의 죄인>의 창작 주체인 작가 채만식을 이 소설 속에서 행해지는 고백의 주체로 좁혀 동일시해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과 주제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¹⁰⁾ 이런 이유

8) 이와 관련하여 다음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김혜동, 『루소의 고백소설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34, 한국불어불문학회, 1997; 유호식, 『자기에 대한 글쓰기 연구 (1) - 고백의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43,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Soong Hee Kim, “Literature as a Mode of Confession : A Case of *The Prelude*”, 『문학과 종교』 9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4; 최승락, 『고백 언어의 특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와 신학』 4, 2007.

9) <민족의 죄인>에서 서술자가 밝힌 친일행적이 작가의 실제 이력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김윤식이나 방민호 등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들의 경우 이러한 상위를 채만식의 착오로 규정하였는데, 이 소설의 고백적 특성에 주목하는 본고에서는 착오 여부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10) 물론 친일행적의 고백을 담은 소설을 발표한 행위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작가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발표 행위의 의미 등을 작품 분석에 관련시킬 때는 외삽적인 작품 분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 본고는 작품분석에 있어서 <민족의 죄인>을 일종의 비주체적인 (non-subjective) 텍스트로 대하고자 한다.

3. 고백의 전략 : 대칭적 회상구조와 이원적 서술방식

<민족의 죄인>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소설의 서사구성상의 특징이다. 현재시점이 액자처럼 발단과 결말 부분을 차지하고 상당한 분량의 과거 회상이 가운데 끼어 있는 회상구조가 두드러진다. 이 장에서는 이 소설의 시간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회상구조를 확인한 뒤, 서술전략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회상구조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민족의 죄인>의 시간 구조는 다음과 같다.¹¹⁾

- 1절 - 서술 시점 현재 ~ 울분의 심리 (디)
- 2절 - 회상 ①-1: 반 달 전 ~ ‘P사’에서 ‘윤’을 만남 (디)
 - 회상 ②-1: 1945년 ~ 시골로 소개 (디)
 - 회상 ③: 1945년 이전 ~ 소개의 이유 (디)
- 3절 - 회상 ③: 1945년 이전 ~ 소개 이전의 친일행적 (디)
- 4절 - 회상 ②-2: 1945년 소개 이후 (디)
- 5절 - 회상 ①-2: 반 달 전 ~ ‘김’과 ‘윤’의 논쟁 (미)
- 6절 - 서술 시점 현재 및 그 이후 : ~ 조카에 대한 훈계 (미)

이상을 보다 간략히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서술행위가

11) 각 부분의 주요 사건을 ‘~’ 뒤에 병기하였다. () 속은 지배적인 서술방식을 표시한다. ‘디’는 디에게시스(diegesis), ‘미’는 미메시스(mimesis)를 뜻한다.

진행되는 현재 시점으로 시작된 뒤(1절), 반 달 전 ‘P사’에서의 일과 식민지시대의 행적에 대한 회상이 3중으로 전개되고(2~5절: ①-1, ②-1, ③, ②-2, ①-2), 다시 현재로 돌아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다(6절).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대칭적인 구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시작과 끝 부분이 현재이고 중간 부분이 과거인데, 과거 부분 또한 가운데로 갈수록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칭적 회상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칭적 회상구조는, 서술 시점의 서술자가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쳐본 뒤에 재차 현재로 나아간 결과로 나타난다. 현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과거가 현재를 받쳐주는 셈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에워싼 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재이다. 이는 의미 연관 면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회상 ② 전체는 <‘윤’과의 대화상황 및 그에 따른 ‘나’의 심정>을 나타내는 회상 ①-1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회상 ③은 회상 ②에서 보이는 ‘소개’의 동기 및 이유와 회상 ①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사건의 회상이 현재와 미래 쪽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회상 부분의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소설에서 현재적인 의미를 띠며 지속되는 시간이 ‘회상 ①에서 1절, 6절로 이어지는 스토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상 ②~③ 부분의 양적인 비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재 사건에 덧붙여진 하위사건(substories)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구조화된 상태를 통해서 <민족의 죄인>의 서술자-주인공에게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식민지시대의 회상 ②와 ③ 부분에서 나타나는 대일협력 행위의 내용 또한 주인공의 현재 상황 및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환기되고(re-collected) 있다 하겠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회상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행적이라는 고백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대한 설명으로 끌어들여졌다는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에 의해 강화된다. <민족의 죄인>의 담론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말하는 것과 말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디에게시스(diegesis)이고 다른 하나는 미메시스(mimesis)이다. 2절에서 5절에 걸치는 회상 부분을 이 맥락에서 검토하면 <민족의 죄인>의 특징적인 담론 구사방식이 확인된다. 2~4절의 회상 ②~③ 부분 곧 나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술이 디에게시스[말하기]로 기술된 뒤에 5절의 회상 ①-2 부분 곧 'P사'에서 '윤'과 '김'이 논쟁하는 사건이 미메시스[보여주기] 위주로 기술되고 있다. 여기서 전자가 반성의 맥락을 띠고 있으며 후자가 변명·변호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부분에서 주인공은 어쨌거나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밝히지만, 이어지는 5절에서는 서술자가 '윤'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김'과 '윤'의 논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로 '나'의 반성은 진정성을 획득하고 '나'에 대한 '윤'의 비판이 과도한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다.¹²⁾

회상구조 전체가 보이는 이러한 의미연관을 담론의 특성과 결부지어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 구조라고 하겠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회상 ②-1에서 ①-2에 이르는 회상구조 속에서는 선후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의 도처에서 반성과 변명·변호가 붙어 나오는 데 있어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 구조는 <민족의 죄인>을 특징짓는 이원적 서술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의 이원적 서술방식은 반성과 변명의 절충이 아니다. <민족의 죄인>에서 이 방식은, 서술 주체를 나눠 '주인공'의 반성과 '서술자'의 변명·변호적 미메시스 형식을 취하면서 주인공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 이원적 담론 구성 방식 속에서, 반성하는 주인공의 반성 내용은 언표의 직접성만큼 명확하며, 반성 주체가 가질 법한 (그러나 스스로는 거부하는) 변명·변호의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

12) 5절 말미에서 주인공이 '김'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2~4절에서 펼친 고백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데로 귀착된다.

을 가질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미메시스에 의해 반성이 변명의 함의를 약화시키며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메시스 부분이다. 변명·변호의 미메시스가 변명하는 주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변호되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이 미메시스 부분에 의해 주체의 반성이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반성의 디에게시스만으로는 반성 이후를 기약할 수 없지만 변명·변호의 미메시스에 의해 주체가 변호되고 반성의 진정성이 획득됨으로써, 반성의 주체가 새롭게 정체성을 갖추고 현실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 방식이 대칭적 회상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앞의 판단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회상구조 속에서 과거가 현재를 뒷받침하듯이, 과거를 반성하는 디에게시스 담론이 주인공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현재 상황의 미메시스 담론 곧 ‘회상 ①에서 1절, 6절로 이어지는 부분’의 의미 기능을 완결지어 주는 것이다.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의 의미연관이 미메시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주목할 점은 ‘반성의 디에게시스’와 ‘변명·변호의 미메시스’가 결합되어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담론 구성상의 이원적 특징이 회상구조에만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인>의 도처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줄곧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소개의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는 2~4절이 그러하고, ‘김’과 ‘윤’의 논쟁을 통해 ‘김’의 궤변을 제시한 뒤 ‘나’ 스스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5절 또한 이러한 이원적 서술방식을 보여 준다.¹³⁾ 황해도 강연으로 시작된 대일협력의 첫걸음을 직접적으로 반성한 뒤에 디에게시스 ‘개성 사건’을 장황하게 보여 줌으로써[미메시스] 설득력 있는

13)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고도의 책략이라 보는 점에서는 본고와 약간 다르지만, 5절과 관련해서 이동하 또한 동일한 의미 효과를 지적한 바 있다(『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 앞의 글, 160~1면 참조).

변명·변호 효과를 끌어내는 것도 동일한 방식의 구성을 보여주며, 풍천을 강연 후 청년들과 세 차례 대면하며 끝내 자신의 진정을 밝히는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의 친일 강연이 실상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기회가 닿을 때는 민족적 진심을 설파하기도 했다고 보여준 뒤에[미메시스] 스스로를 ‘양서동물’이라 규정하며 반성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디에게시스], 매일신보 연재소설 집필 시 겪은 봉변을 보여준 뒤에 ‘일변 생각하면 받아 쓴 욕’이었다고 반성하는 것, 대일협력의 악취를 못 견뎌 하는 ‘지극히 당면적인 간단한 욕망’을 제시하고는 그에 더하여 ‘죄의 표식에 농담이 유난히 두드러질 것은 없는 것’이라 반성하는 것(16호 53~4면),¹⁴⁾ 아내와의 대화 부분에서 다시 시골로 가서는 살 도리가 없음을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설명한 뒤 마루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여주며 민족의 죄인이 나아갈 속죄의 길이 다음 세대 교육임을 보여주는 방식, 조카를 훈계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는 ‘나’의 심정을 밝히는 종결 부분의 처리 방식 등이 모두 그러하다.

요컨대, 한편에서 주인공 ‘나’는 자신의 잘못을 반복해서 반성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술자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덧붙여 그러한 행위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다. 디에게시스 층위에서는 주인공이 상황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강조하는 반면 미메시스 층위에서는 서술자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반성’이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자는 ‘나’의 행위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님을 밝혀 주며, 그 결과로 주인공의 반성의 진정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의 이원적 서술방식은 작품의 도처에서 크고 작은 형식으로 등장하여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반성

14) ‘죄의 농담’론과 관련하여 김윤식은 이것이 작가의 양해사항이자 독자를 협박하는 강요사항이며 진정성이 없는 저질의 변명이라 비판한 바 있는데(『채만식론 - 민족의 죄인과 죄인의 민족』, 앞의 글, 212~5면) 이는 이러한 담론 구성방식의 궁극적인 의미 효과를 간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 변명·변호의 변증적 의미 관련을 드러내는 이러한 패턴 구사의 효과는 사실상 반성을 뒤집되 한갓 변명에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 소설의 의미를 두고 반성 혹은 변명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된다. 반성과 변명의 이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양자를 지양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패턴을 구사하는 이원적 서술방식이야말로 <민족의 죄인>의 특징적인 서사전략에 해당한다.

<민족의 죄인>의 서사전략은 서사구성과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대칭적 회상구조라는 서사구성상의 특징 자체가 이러한 이원적 서술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데서 확인된다. 본고는 이러한 상호관련 상태를 일컬어 ‘고백의 전략’이라 명명한다.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구성에서뿐 아니라 서사의 하위 지절들에서 반복적으로 반성과 변명·변호의 이원적 서술방식을 구사하는 서사전략의 궁극적인 의미 효과가 ‘반성 - 변명’의 이분법을 넘어서 고백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족의 죄인>은 고백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한낱 변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4. 고백의 맥락에서 본 반성과 변명의 문제

<민족의 죄인>의 1절은 아래의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까지는 단순히 나는 하여커나 죄인이거나 하여 면목 없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골돌할 뿐이더니 그날 금군의 P사에서 비로소 그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종의 자포적인 울분과 그리고 이 구차스런 내 몸덩이를 도모지 어떻게 주체할바를 모르겠는 불쾌감이 전면적으로 생각을 덮었다. 그러면서 보름동안을 머리 싸고 누어 병 아닌 병을 앓았다.(15호 33면)

여기서 두 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앞서 밝힌 바 이 소설의 시간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의 심리변화이다. ‘나’의 심리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일은, 반성과 변명의 이분법을 지양하여 이 소설의 주제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앞에서 지칭하였고 이하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는 고백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주인공 ‘나’의 심리는 다음처럼 변하고 있다. 반성 혹은 불명예의 의식 → ㉠ → 자포자기적인 울분과 불쾌감 → ㉡ → 속이 후련하고 안심되는 느낌(이는 인용문 이후 6절에서의 심정이다). 이러한 심리 변화는 각각의 사이에 놓인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두 군데의 스토리라인에 의해 주인공의 심리가 셋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다.

㉠에 놓여 있는 스토리라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P사에서 만난 ‘나’와 ‘윤’의 짧막한 대화고, 둘째는 그에 길게 이어지는 ‘나’의 과거 회상이며(2~4 절), 다른 하나는 ‘김’이 돌아와 ‘윤’과 벌이는 논쟁이다(5절). 주인공의 과거 친일행적을 다루는 둘째 스토리라인이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제효과 면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고백의 전략을 완성하는 셋째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심리를 살피기 위해서 첫째 부분을 검토해 본다.

주인공의 회상이 전개되기 전에 그가 ‘윤’과 나누는 대화는 총 일곱 마디뿐이다. “안녕하십니까?”와 “(퍽) 오래간만입니다”를 반복하듯이 주고받은 후에, ‘윤’이 “시골루 소개(疏開) 가셨드라구”라 말을 건넌 뒤 주인공의 대답(‘네’)에 이어 “호박이랑 옥수수랑 많이 수확하셨읍니까?” 하고 묻는 것이 전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짧은 대화를 전후하여 주인공이 보이는 심리상태이다. 근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윤’에 대한 ‘나’의 심리는 자격지심에 가깝다. 자신은 ‘민족의 죄인’인 반면 ‘윤’은 대일협력을 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한 팔이 꺾여 눈치가 보이는’ 심리가 ‘윤’을 대하는 ‘나’의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상태에서 주인공은 첫 인사말을 나눌 때 ‘윤’의 억양과 표정에서 ‘경멸하는 빛’을 보고 불임성 있게 건넨 둘째 인사말에 대해서는 생각 밖이

라고 느끼다가, 끝의 말을 들으면서는 ‘아조 노골한 경멸과 조롱’을 느낀다(2절 앞부분, 15호 35면). 이어 과거를 회상하고는 ‘윤’의 그 말이 “이놈아, 이 민족반역자야”라고 하는 ‘타매(唾罵)와도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절 끝부분, 16호 55면). 이 심정은 ‘김’이 돌아온 후 ‘윤’이 ‘내선일체 소설’ 운운하는 데서 한층 극대화되어 그가 자신을 욕하려고 생트집을 잡는다 생각하며 ‘속에서 뭉쿨하고 가슴으로 치닫는 것’을 삼키고 참는 데까지 이른다(16호, 56면). 이후 벌어지는 ‘윤’과 ‘김’의 언쟁에서 ‘나’는 한마디도 끼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선다. 거리로 나서는 그의 심리상태는 심란하다.¹⁵⁾

이상의 요약에서 보였듯이 ‘윤’에 대한 ‘나’의 심리는 자격지심에서 (‘윤’의 경멸, 조롱, 타매, 생트집에 따른) 울분과 불쾌감을 거쳐 심란함으로 변화되고 있다.

애초부터 한 팔 꺾이는 자격지심이 친일행위의 유무에 있음은 이미 서술자 주인공의 명언대로 확인한데, 울분·불쾌감과 심란함의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커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느끼면서도 주인공이 ‘윤’에 대해 울분과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의 표현대로 ‘재산적 운명’에 의해 지조를 시험받지 않은 ‘미시협품’인 ‘윤’이 ‘분수 이상으로’ 자신을 비판(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심란함은 ‘윤’이 그렇게 박절하게 비판한다 해도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는 사실, 곧 ‘尹’의 지조

15) 서술자에 따르면 ‘김’과 ‘윤’의 논쟁이 끝났을 때 ‘나’의 심리상태는 ‘윤’의 말이 옳고 ‘김’의 말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뺏기 한 점 없는 얼굴’로 ‘김’과 헤어지며 나누는 대화를 따서 말하자면 ‘죽기만 못한’ 심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서술자의 규정이 ‘심리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주인공이 ‘김’에게 건네는 말 또한 그의 심리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운데, ‘윤’과의 대면에서 ‘나’가 느끼던 자격지심이나 울분, 불쾌감을 생각하면, 주인공의 심리를 죽고 싶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P사를 나올 무렵의 ‘나’의 심리는 ‘나’나 서술자에 의해 다소 가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심리가 제대로 포착되는 것은 길에 나선 주인공이 일기를 보며 “흐렸던 하늘에서는 어느듯 심란스런 비가 나리고 있었다”(16호, 61~2면)라고 하는 구절에서이다. ‘심란함’이야말로 ‘나’의 심정이다.

가 아모리 미시힘의 것이기로나, 결백이 재산의 덕분이기로나, 죄인을 공격한 자격이 없으란 법은 없는것”(16호, 61면)임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요컨대 주인공은 ‘윤’의 비판이 도를 넘었으며 따라서 부당한 타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지만, 이성적으로는 ‘윤’의 비판 자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윤’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그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심리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열상태가 울분과 불쾌감을 낳고 주인공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주인공의 심리를 제시하는 기법상의 특징이다. 미메시스 차원에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상황과 실제로 디에게시스 차원에서 기술되는 심리 사이의 부정합성이 그것이다.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대화의 실제 양상과 서술자의 심리 규정 사이의 괴리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단 일곱 마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와 ‘윤’이 행하는 대화의 양상은 어떻게 보면 심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메시스 차원에서 실제 행해진 것들만 보면 평범한 수인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여기에 주인공의 설명과 심리 규정이 더해져서 ‘윤’과 ‘나’ 사이에 긴장이 부여되고 있다. 결국 서술자=주인공의 디에게시스에 의해 상황이 달리 제시되는 것이다.¹⁶⁾ 다른 하나는 ‘윤’과 ‘김’이 나누는 대화 · 논쟁을 주인공이 듣는 방식이

16) 본고가 널리 알려진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를 사용하지 않고 ‘디에게시스’와 ‘미메시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 둔다. 본문의 논의에서 확인되듯 ‘나’와 ‘윤’의 대화 장면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디에게시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직접적인 첫째 이유가 된다. ‘말하기 / 보여주기’와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 디에게시스’, ‘보여주기 = 미메시스’와 같이 이해되지만 지금의 경우처럼 어긋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예컨대 일반적인 배경묘사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경우 배경묘사는 보여주기이면서 디에게시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말하기 / 보여주기’를 구사할 경우 오해의 여지가 큰 ‘나’와 ‘윤’의 대화 상황 등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는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 개념쌍을 구사한다. 이 외에 다음 이유를 덧붙일 수 있다. 디에게시스는 시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미메시스는 시인이 등장인물인 듯이 말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정의대로(플라톤, 조우현 역, 『국가 / 시학』, 삼성출판사, 1990, 114~6면 참조)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는 서술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기 때문에, ‘반성의 디에게시스’와 ‘변명 · 변호의 미메시스’가 각각 주인공 ‘나’와 서술자에 의해 변별적으로 구사되는 <민족의

다. 친일 경력자를 비판할 때 ‘윤’이 복수형을 쓰며 일반화해도 주인공 ‘나’는 그의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한 통박이자 트집으로 간주함으로써 소통되는 내용에서 차이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에서 두 가지가 확인된다. 하나는 주인공의 울분과 불쾌감이 ‘윤’의 발언 자체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태도 및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심리에 의해 촉발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주인공의 울분과 불쾌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는 서술의도이다. 미메시스 차원에서 확인되는 실제 양상에 비취 다소 극단화된 주인공의 심리를 서술자가 디에게시스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말한 부정합성이 이의 결과이자 동시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이다.

이렇게 주인공이 보이는 첫 번째 심리변화는 ‘나’의 주관성 및 서술자의 의도된 서술에 말미암는다. 반면 두 번째 변화는 그의 행동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행동의 결과로 후련함과 안심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의 두 번째 심리변화는, 그가 자기 아내와 대화하고 조카를 훈계하는 두 번째 스토리라인¹⁷⁾ 이후에 나타난다. 이 변화가 지나치게 작위적·극적이라고 판단한 몇몇 연구자들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불필요하다고까지 보았다.¹⁷⁾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심리를 낳은 ‘조카에 대한 주인공의 훈계’가

죄인>의 이원적 서술방식을 해명하는 데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 개념쌍이 유용하고도 적절하다는 점이다. 이와 비교할 때 ‘말하기 / 보여주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화자를 전제 한 위에서 서술효과상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분석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가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 및 ‘말하기 / 보여주기’에 대한 일반론의 견지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님을 부기한다. 본고에서 그럴 여유도 없고 필자에게 그럴 능력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만큼 복잡다단한 사정도 이와 관련된(이)에 대해서는, 제레미 M. 호손, 정정호 외 옮김, 『현대 문학회론 용어사전』, 동인, 2003, 202~8면 참조. 요컨대 이상의 용례는 <민족의 죄인>이 보이는 답론 구사 방식의 특성을 밝히는 논의에 의해 요청된 것이지, 일반론으로 전제된 것이 아니다.

- 17) 사에구사 도시카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8·15 이후의 친일파 문제』, 앞의 글, 507면). 김윤식의 경우도 ‘안이한 결말 처리’라 규정하고 있다(『채만식론 - 민족의 죄인과 죄인의 민족』, 앞의 글, 214면).

아내의 충고에 따른 것만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식민지시대의 (현재 시점에서 친일행적으로 남게 된) 대일협력 강연 도중, 한밤에 따로 만난 젊은 이들에게 은밀히 행했던 애국적인 훈계에 닿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을 고려하면 조카에 대한 훈계와 그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를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본고의 입장에서 그것은 주인공의 사회적 역할(role)의 회복이자 자기 정체성의 재수립 행위에 해당된다. 훈계 행위 후에 그가 느끼는 심정이 “속 후련하고, 겹하여 안심 되는것 같은것”(16호, 65면)임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러한 ‘역할 회복’, ‘정체성의 재수립’이 가능한 메커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훈계 행위가 가져오는 심리변화의 효과를 염두에 둘 때 주인공이 ‘윤’에게 일언반구도 대꾸하지 않은 이유이다.

둘째 사안에 대해 먼저 두 가지로 답해 본다. 왜 주인공은 ‘윤’에게 해명하지 않는가. 이 질문의 답을 ‘나’의 내면심리 등에서 객관적으로 추론해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족의 죄인> 전체의 내용구성을 염두에 두고 답을 찾아야 한다. ‘김’과 ‘윤’의 언쟁에서 서술자작가가 사실상 ‘김’의 논리에 기대는 한편 ‘윤’의 언행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내내 침묵하던 ‘나’가 ‘김’이 틀렸고 ‘윤’이 옳다고 판단하게 하는 이유 또한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윤’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서술자작가의 판단과 의도를 심본 살리기 위해, 사실상 ‘윤’의 말문이 막히는 논쟁의 종결 방식에 주인공이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윤’의 말에 대응하지 않는 것 또한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의 해명은, 이 소설이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에 주목하여, 고백양식의 특성에 비추어 좀 더 적극적인 의미효과를 읽어 보는 것이다. 주인공이 ‘윤’에게 해명·변명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의 맥락에서 보면 답은 간명하다. ‘나’는 이미 회상 부분에서 자신의 친일

행위를 고백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그 자신을 충분히 변호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사의 전개 차원에서 회상 내용에 후행하는 서술시점 곧 ‘김’이 ‘윤’과 연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주인공-서술자는 회상 부분에서의 고백을 통해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기에, 구태여 ‘윤’에게까지 자신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고백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주목해야 한다. 고백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인 곧 세상 사람들의 동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재정립하는 데 있다.¹⁸⁾ 따라서 고백은 한갓 텍스트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사상과 신념, 행위, 실천 등을 망라하는 삶에 대한 태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완수를 위해서는 행동과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¹⁹⁾ 요컨대 고백이란 고백 서사 내의 어떤 인물에게가 아니라 고백의 청자에게 궁극적으로는 고백 서사의 바깥에 있는 독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민족의 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고백을 행하는 주인공이 원하는 바는, ‘윤’의 이해가 아니라 청자(독자)의 관심과 이해, 동정이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아내와의 대화와 조카에 대한 훈계 이후 주인공이 갖게 되는 후련함과 안심이 주인공의 사회적 역할의 회복이자 자기 정체성의 재수립이라는 점 또한 보다 분명해진다. 앞서 우리는 ‘고백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수되는 것은 고백의 실천을 통해서라 하였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민족의 죄인>의 주인공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환기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마침 찾아온 조카에게 훈계함으로써 새롭게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하겠다. 요컨대 조카에 대한 훈계는 고백에서 확인된 자신의 역할을 연장하여 해방기에서 재차 수행한 것이며, 이 행위를 통해 주인공은 자기 정체성을 새삼 다지게

18) 유호식, 「자기에 대한 글쓰기 연구 (1) - 고백의 전략」, 앞의 글, 186면 참조.

19) Soong Hee Kim, “Literature as a Mode of Confession : A Case of *The Prelude*”, 앞의 글에서는 고백의 내용보다 고백한다는 행위가 중요한 점을 밝히고 있다(82면 참조). 또한, 고백의 화행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최승락, 「고백 언어의 특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앞의 글, 61면 참조.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인공의 훈계는 ‘병 아닌 병’을 앓는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변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의 고백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훈계 행위가 조카를 위해 행하는 ‘훈계를 위한 훈계’가 아니기에 스스로 생각해도 ‘중뿔난 짓’이고 속을 아는 아내를 보기에 축스러운 것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백의 연장선에서 그 목적을 완수하는 것,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백양식의 맥락에서 <민족의 죄인>을 살피는 것은, 이 소설이 구성상 파탄나지 않았다는 판단 위에서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본 장의 논의를 고백의 맥락에서 정리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이 여기에 보태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주인공의 친일행적을 변호하는 ‘김’의 논리나 그에 대한 주인공의 부정 모두가 회상 부분에서 행해진 고백의 진정성을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소설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에 기초를 둔 서사전략의 기능이기 때문에 주인공 아내의 충고는 그리 높게 평가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²⁰⁾

5. 해방기 채만식 작품들의 의미망

1장에서 본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두었는데, 그 요점은 <민족의 죄인>이 해방 이후의 채만식 소설들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이들 작품의 변화과정에서 행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이 시기의 작품들을 발표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해 둔다.²¹⁾

20) 아내의 충고를 중요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하는 만큼 이 작품의 구성상 결함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없다.

21) 미완인 경우와 작품집 발간, 사후 출간된 유고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확한 발표일자에

- ① <맹순사>, 『백민』, 1946.3·4
- ② <역로>, 『신문학』, 1946.6
- ③ <미스터 방>, 『대조』, 1946.7
- ④ <논 이야기>, 『협동』, 1946.10
- ⑤ <허생전>, 『협동문고』 4-1, 1946.11
- ⑥ <도야지>, 『문장』, 1948.10
- ⑦ <낙조>, 『잘난 사람들』, 1948.9(?)
- ⑧ <민족의 죄인>, 『백민』 16~17, 1948.10, 1949.1
- ⑨ <역사>, 『학풍』, 1949.1
- ⑩ <극동선수>, 『신천지』, 1949.2~3

위의 목록에서 알 수 있듯 <민족의 죄인>은 해방기 이후의 작품세계에서 말기에 나온 것이다. 작품들이 보이는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민족의 죄인>의 위상과 기능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이들이 작품의도(the intention of work) 및 주제효과를 기준으로 3~4 그룹으로 구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룹 1은 풍자를 이용하여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소설들이고(③, ⑥), 그룹 2는 사회상황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포함한다(①, ②, ④). 이 두 그룹은 풍자를 사용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나머지 소설들이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인 그룹 3은 자기비판 혹은 고백을 보여준다(⑦, ⑧).²²⁾ 그 외의

대해서는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역락, 2004)을 참조했다. 서지를 이렇게 보면 1947년 전후 2년이 공백기처럼 보여 김재용 등의 경우 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 문학과사상연구회,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후에 발표되는 작품들을 창작하는 한편 각종 작품집을 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문학적 휴지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22) <낙조>의 경우 ‘나’에 대한 ‘춘자’의 비판이 매섭고 본질적이어서 딱히 자기비판에 해당

작품들이 그룹 4로서 풍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역사소설이 여기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화와 출판일자를 함께 고려하면 <민족의 죄인>이 갖는 경제적 성격이 드러난다. <민족의 죄인> 이전의 작품들은 풍자를 사용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회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족의 죄인> 이후의 작품들은 풍자적, 비판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거에 시선을 둔다.²³⁾ 이들 두 가지 경향의 가운데에서 <민족의 죄인>은 주인공의 내적인 심리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고백양식을 취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풍자는 자기 비판으로 전화되어 있다.

둘째로 작품의 의도와 초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기의 풍자적인 작품들은 부정적인 외적 현상 곧 사회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시선을 둔다(①, ③, ④, ⑥). <역로>는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외적 조건에 대한 관심이 우세한 가운데 자아에 대한 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낙조>에 오면 주인공의 내면에 대한 관심과 외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맞서 있다. 따라서 작품의 관심사가 외적인 테서 내적인 테로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작품 시선의 내향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의 죄인>에서 정점에 이른다. 강조점이 역전되는 까닭이다. 이 소설에서 문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 곧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이자 비판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민족의 죄인>과 한 부류에 묶인다 할 수 있다. 사소설을 벗어나 객관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낙조>가 더 뛰어나다고 본 경우도 있으나(방민호, 앞의 책), ‘사소설’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는 주제의 직접적인 토로보다 극적인 제시가 소설미학적으로 우월하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 것으로, ‘말하기 / 보여주기’ 혹은 ‘디에게시스 / 미메시스’를 두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맥락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고백양식의 문학사적 가치에 주목한다면 <민족의 죄인>의 위상이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 23) 이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평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몇 편 쓰여지지 않은 채 작가가 죽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자들은 <민족의 죄인>에 대한 평가의 연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왔다. <민족의 죄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들을 두고 역사물로의 도피라 간주하는 반면, 긍정론의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사회상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긴 호흡으로 사회를 바라보고자 한 시도라고 고평한다. 정호웅이 전자를, 정홍섭(앞의 책, 277면)이 후자를 대표한다. 본고는 후자 편에 선다.

되는 것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적인 진정성이다. 내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는 작품 시선의 내향화 과정이 이 소설에서 이렇게 극대화된 뒤, 이후 소설들에서는 현재의 전사(前史)으로 작가의 시선이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외적인 데서 내적인 데로 관심이 옮겨가는 내향과 과정이 <민족의 죄인>에서 완수되고 이후 새로운 시대를 해석하는 시야의 확보를 위해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소설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이 보이는 시선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인 풍자 구사에 있어서의 변화를 포함하여 이들 소설들 전체를 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풍자의 방법과 외적인 데 대한 관심이 나란히 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해명해야 할 것은 작가가 풍자의 방법을 버리고 (혹은 포기하고) 역사에로 시선을 돌린 이유가 된다. 이 질문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고백의 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⁴⁾

고백은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 자신을 재정립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되고, 과거를 변호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고백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을 믿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런 맥락에서, 고백의 능동적인 요소는 고백 주체의 올바름이나 정당함 혹은 행위의 불가피성이나 이상에 대한 주체의 믿음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죄인>의 주인공이 울분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초기 작품들에서 부정적인 인물 및 사회상황을 풍자,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 위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의 죄인>이 보이는 고백은 그 이전 작품들의 풍자를 계승하고 지양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민족의 죄인>은 풍자를 자기비

24) 이 경우 작가의 의도를 심리학적으로 추측하거나 풍자의 효과나 가치에 대한 작가적 태도 및 판단의 변화를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작품들의 계열체 내에서 창작방법 및 수법의 변화를 일관되게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백 양식의 구사가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의 변화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판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풍자를 완수하고 있다. 이렇게 풍자가 완수되어 스스로 소멸한 이후, 이미 보았듯이 작가의 시선이 역사으로 정향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역사소설을 쓰면서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심원한 시야를 갖추기 위해 채만식이 풍자적인 작품들을 완결 지을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행한 것이 바로 <민족의 죄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전 작품들의 풍자를 완성하고 소설 쓰기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에서 <민족의 죄인>이 행하는 기능이자 소설사적인 위상이라 하겠다.

6. 결론

본고는 주인공의 심리변화와 서사구성상의 특징, 서술 전략의 세 측면에서 <민족의 죄인>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백의 맥락에서 검토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에게 중요한 일은 그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윤’의 말에 울분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청자·독자의 동정과 이해를 이끌어 내고, 조카에 대한 훈계를 통해 계몽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된다.

이 소설이 보이는 대칭적 회상구조와 ‘반성의 디에게시스 + 변명·변호의 미메시스’ 패턴을 핵으로 하는 서사전략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결과이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 틀이다. 이러한 서사구성과 서사전략이 긴밀히 조응하여 앞서 말한 정체성 회복을 가능케 하는데, 이를 고백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죄인>은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에서 분수령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세계에 대한 비판·풍자에 이어 풍자를 고백으로 해소하고 역사소설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작품 시선의 내향화가 이 소설에 이르러 극대화되어 자기반성의 형식으로 풍자를 완성한 후에 역사소설

쓰기에 요청되는 바 새로운 시대를 읽는 데 필요한 시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의해 본고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백에 주목하여 ‘반성 / 변명’의 이분법을 지양함으로써 <민족의 죄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절장보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고백의 적극적·긍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해방기 채만식 소설의 전모를 내적인 연관 속에서 일관되게 파악하고 이 소설의 위상을 확정한 것이다. 끝으로 셋째는 소설 장르에서 풍자가 갖는 소명과 고백양식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고려할 계기를 마련한 것인데, 이 계기를 살려 나아가는 것이 차후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채만식, <民族의 罪人>, 『白民』 15~16, 1948.10, 1949.1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 연구』, 민음사, 1987

제레미 M. 호손, 정정호 외 옮김,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동인, 2003

최유찬, 『문학의 모험 -채만식의 항일투쟁과 문학적 실험』, 역락, 2006

플라톤, 조우현 역, 『국가 / 시학』, 삼성출판사, 1990

3. 논문

- 김윤식, 「채만식론 - 민족의 죄인과 죄인의 민족」(1976), 『한국현대문학사 - 1945~1980』, 일지사, 1983
- 김재용,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 문학과사상연구회,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 김혜동, 「루소의 고백소설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34, 한국불어불문학회, 1997
- 류보선, 「냉소와 숭고의 이상한 가역반응 - 채만식 문학에 있어서의 친일과 반성의 문제」,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소명출판, 2005
- 사에구사 도시카스, 「8·15 이후의 친일파 문제」,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틀·북, 2000
- 유호식, 「자기에 대한 글쓰기 연구 (1) - 고백의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43,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 윤대석, 「서사를 통한 기억의 억압과 기억의 분류」, 『현대소설연구』 3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 이동하, 「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 『배달말』 16, 배달말학회, 1991
- 장성수, 「진보에의 신념과 미래의 전망 / 채만식론」, 김용성·우한용 공편,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 정호웅,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 주체의 문제」,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 조창환, 「해방 후 채만식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 현대문학이론학회, 1993
- 최승락, 「고백 언어의 특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와 신학』 4, 2007
- 한형구, 「채만식 문학의 깊이와 높이」, 김윤식·정호웅 엮음,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 Soong Hee Kim, “Literature as a Mode of Confession : A Case of *The Prelude*”, 『문학과 종교』 9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4

■ 영문초록

The Sinner of the Nation is a problematic short story, which is verified in the opposition in defining the thematic effects of this work. This study aims to sublimate this dichotomy and confirm the inner relation of Chae Mansik's works after Libera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confession mode.

The confession of this short story is made by way of both the narrative strategy which uses the pattern of 'diegesis of reflection + mimesis of excuse/vindication' and the symmetrical recollective narrative structure. The narrative strategy fortifies the sincerity of confession by distributing reflection to the hero and excuse/vindication to the narrator. The narrative structure makes the past support the present. After all, supported by these narrative strategy and structure, the confession strategy makes it possible for the hero to rediscover his social status and reestablish his identity.

The Sinner of the Nation is a bordering work in Chae Mansik's works after Liberation, the intentions of which change from exterior to interior direction with time. The intention for the interior matters is culminated in this work and then the author turns his eyes at the pre-history of the present. As a conclusion we can say that completing the satire of the preceding works and opening a new horizon in writing novels, these are the function of *The Sinner of the Nation*.

Key Words : Chae Mansik, The Sinner of the Nation, Pro-Japanese Act, Confession, Satire

접수일자 : 2009.2.28

심사기간 : 2009.3.10-3.30

게재결정 : 2009.4.1